이름 ‘솔로몬’은 보통명사다

(열왕기상 3:1~15)

4.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5.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6.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7.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8.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이름 ‘솔로몬’은 보통명사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이름 ‘솔로몬’은 보통명사다

굳이 ‘보통명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국어의 문법적인 분류상 고유명사에 속합니다. 사물이나 사람을 다른 대상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붙이는 이름이 고유명사입니다. 한강 두만강 압록강 설악산이 다 고유명사인데, 해와 달은 유일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 구별 지을 필요가 없기에 고유명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동명이인일 수가 있지만 고유명사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불리는 이름이라면 홍길동이라는 이름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존재를 가리키는 보통명사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만난 사람을 부산에서 또 만났습니다. 그럴 때에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홍길동 같다’고 하는데 이럴 때의 홍길동은 보통명사입니다. 한동안 ‘조미료’라는 보통명사 대신에 ‘미원’이라

는 고유명사를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게에 가서 미풍을 사 오면서도 미원을 사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으로 고유명사인데, 이 솔로몬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향해서 홍길동으로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보통명사가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다른 것들까지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을 바탕으로 솔로몬을 보통명사라고 말한다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네가 무슨 솔로몬이냐? 일천 번제를 드리게. / 네가 무슨 솔로몬이냐? 듣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 내가 무슨 솔로몬인가? 하나님께서 왜 구하지도 않은 것을 다 풍족하게 주시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솔로몬에게서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개개인을 부르는 보통명사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선민 됨의 모습을 찾지 못한 것이거나 아니면 끔찍한 얘기입니다만 선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일천 번제와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를 솔로몬이 되게 하는 세 가지 요소인데 여기에 착안하여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소들은 솔로몬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일화입니다. 일천 번제를 드렸고 이전의 성경에서는 지혜를 구했다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구하지도 않았던 장수와 부와 원수를 이기는 형통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족보를 끌어와야 합니다. 족보는 굉장히 복잡하고 긴데 이 이스라엘의 족보를 간략하게 축약시키면 마 1:1절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을 보면 그 언약의 대상은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동시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솔로몬'이라는 족보를 통하여 의미와 참 내용이 예표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언급이 없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위험하고 본래 의미에 미치지 못하는 가능성이 농후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솔로몬'이라는 축약된 족보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천 번제와 솔로몬의 기도의 의미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알고 이 일이 내게서도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행7:2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농축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라는 말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관계의 유일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다면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1등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등을 한 자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집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1등을 하셨다'는 얘깁니다.

창세기12~25장까지의 긴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한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1등 하시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1등 하셨다'는 것은 흔히 사람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정리하여 1등의 자리를 유지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1등 자리에 하나님을 모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1등자리를 드리기 위해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보는 왕들마다 탐을 냈던 아내도 버립니다. 조카 롯과 거주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삶의 터전을 버리고 궁극의 가치인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보다도 하나님을 더 좋아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약속을 붙잡지 않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셔 들였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대로 행해서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1등 되심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믿음의 조상을 통해 보여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다윗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1등 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유지해 나가는 신앙적 삶의 모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초적이고 오리지널한 믿음의 모델이었다면 다윗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적 삶의 모델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1등자리에 모시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치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는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 와서 드디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앙적 삶에 도달하기 위해 취했던 일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일천 번제이고 기도였습니다.

일천 번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번제'는 죄로 찌든 마음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이나 소

가 죽는 것을 내가 죽는 것으로 동일시하는 이유는 내가 죄에 찌들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1등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돈이 1등이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1등이면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독자까지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지 못한 채 자녀가 1등이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이것이 바로 죄로 찌든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볼 때에 그러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삶에 뛰어든 자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져야만 아버지의 길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일천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기 위해 하루 종일 제사만 드려도 일주일이 넘게 걸렸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 수정처럼 명확하게 1등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마음에서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양파 껍질을 벗겨내듯이 내 마음을 차지하려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천'은 수정같이 투명하게 하나님과 일대일로 마주대하기 위해서는 번제를 계속해서 드려야함을 뜻합니다. 이러한 일이 솔로몬에게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일어날 때에 솔로몬이 되는 것입니다. 일천 번제의 의미는 횟수보다도 목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확해질 때까지 번제를 드리는 것인데 바로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에 1등자리를 차지하려고 들어오는 관심의 대상들을 십자가를 붙잡고 죽음으로서 일천 번제가 드려져야 하는데 십자가와 주기도를 합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동선을 따라 내 마음이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 올라가고, 내가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내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예상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첫 번째 대상으로 나타나질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1등이 되셔야만 하는 믿음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 일천 번제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일천 번제를 통해서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는지 물으시자 '듣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듣는 마음이 지혜라는 말로 번역되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혜는 일종의 재능과 달란트로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솔로몬의 듣는 마음은 하나님을 옆에 모시며 라이브로 음성을 듣는 것이었는데 아버지 다윗처럼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려야만 하는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아브

라함의 믿음이 유지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일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유지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지되기 위해서 자신의 판단과 소원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기 위해서 일천 번제를 드렸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솔로몬에게 지혜를 자질로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한 평생의 순간순간에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유지될 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말년에 솔로몬은 많은 이방인 부인들을 얻게 되어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지만, 오히려 이러한 사건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붙박이식의 지혜가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혜와 총명'이 또한 히브리어 원어로는 '듣고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즉 판단을 듣고 결정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구했던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뛰어든 것은 같았으나 굳이 차이점을 들자면, 다윗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나라 역사의 발전 단계상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는 골리앗을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의 영토 확장 위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과제였기 때문에 판단과 분별이 중요했습니다. 이 판단과 분별의 이야기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며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솔로몬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이 저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은 내 이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천 번제를 통해서 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대상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첫 번째 대상인 상태로서 삶의 현장이 지속되기를 위해 힘을 기울였던 것이고 이것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나 상황은 내가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안에서 솔로몬의 이름처럼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각각의 모든 선민들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솔로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도 아브

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또 하나의 솔로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